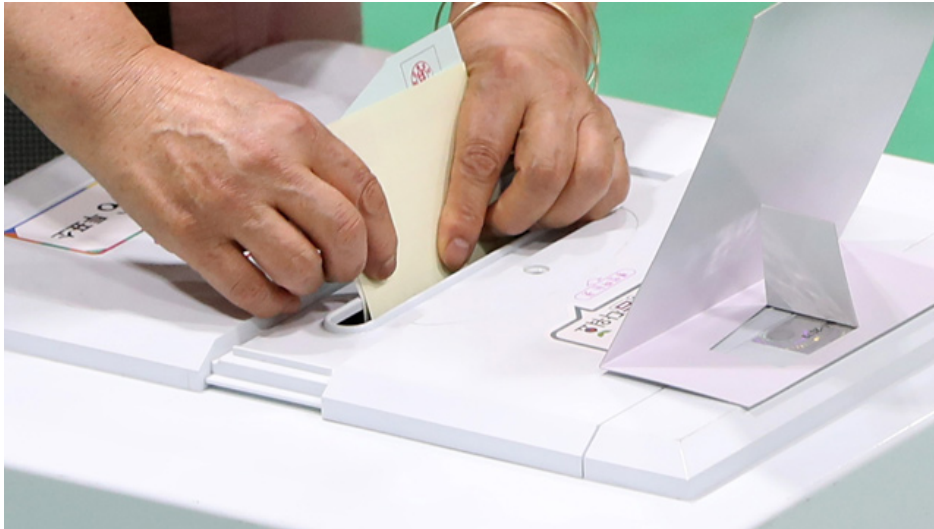




[김경래의 최강시사] 새롭게 유권자 된 18세들..여당에 유리하다고? 글썄

KBS 입력 2020.01.07 11:22 수정 2020.01.07 11:22



- 개혁 발목잡은 보수야당 심판 VS 안보·경제위기 정권 심판 구도로 붙는 이례적 총선
- 개정 선거법으로 유권자 된 고3학생 53만명, 총유권자의 1.2%로 접전지역 변수될지도
- 지지정당이나 이념지형에서 20대 남성은 60대와 비슷, 20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 아직 제대로 조사된 바 없지만 18세 유권자도 20대 성별 유권자 성형과 비슷하지 않을까?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3>
- 방송시간 : 1월 7일(화)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권순정 조사분석본부장 (리얼미터)

[김경래의 최강시사] 200107 권순정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 여당심판보다 ...



(여론조사 개요는 인터뷰 전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및 매트릭스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20대 총선 100일이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99일 남았다고 그러네요. 본격적인 총선 국면입니다.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심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권순정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권순정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래 : 대목이죠? 총선이라.

▶ 권순정 : 총선에 접어들면서 점점 대목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 김경래 : 바쁘실 것 같아요.

▶ 권순정 : 네, 바쁩니다.

▷ 김경래 : 이번 총선의 쟁점은 뭐냐? 이런 조사도 많이 있었어요.

▶ 권순정 : 흔히 조사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프레임 조사다.' 각각 정치 세력들 논거나 주장들을 하나로 묶어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사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정권의 임기 중반에 이루어지는 선거에서는 보통 한쪽에서는 국정안정론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심판론이 아주 전형적인 어떤 선거 프레임의 주장들이 맞부딪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요즘에는 국정안정론이 정부여당에 있어서 보수야당심판론으로 조금 변화가 됐고요.

▷ 김경래 : 야당심판론?

▶ 권순정 :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개혁에 저항하거나 국정 발목, 그러니까 워딩이 조금 다른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부심판론은 똑같은데, 사실상 그 내용은 주로 안보나 경제 위기초래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파탄, 이렇게 두 가지의 주요 주장들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쪽이 더 우세해요?

▶ 권순정 :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월에 이른바 일본 경제 보복 정국이 벌어졌잖아요. 그때는 사실상의 보수야당의 친일기득권 그런 프레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 금방 말씀드렸던 보수야당심판론과 안보경제 위기초래 이 부분들에 어떤 정부심판론을 비교해보면 보통 어떤 조사들은 5:3 조금 더 가까운 것은 5:4 정도로 해서 정부심판론보다는 보수야당심판론에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 찾아봤는데 하나의 예외도 없이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수야당심판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이례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년에 총선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 권순정 : 그렇죠. 아무래도 임기 중반에 이루어지면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내부 관리의 문제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정부심판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정권에서 지금 총선 앞두고는 약간 조금은 이례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이번 총선은 사실 또 가장 큰 관심이 바뀐 선거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 권순정 : 많은 신문들이 이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전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로 해서 단순히 나눠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정당의 의석수를 정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지역구보다는 정당 득표율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러나 좀 100% 연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50% 연동을 시킨다든지 거기다가 47석 중에서도 일부 30석만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반감되긴 했는데, 어쨌든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대로 비례정당이 출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의당이 좀 보수 쪽으로 잡아서 15석, 조금 더 낮게 정의당

입장에서 쳐준다고 한다면 교섭단체까지 갈 수 있는 판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지만 만 18세도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 김경래 : 고3 학생들.

▶ 권순정 : 그 인구가 한 53만 명이 되고.

▷ 김경래 : 꽤 많네요.

▶ 권순정 : 전체 유권자 한 4,300만으로 봤을 때 기본 1.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9세 이상 20대까지 포함되면 한 17%에서 18% 늘어나는데 비율은 상당히 적지만 이른바 수도권이라든지 접점지역에 이루어지는.

▷ 김경래 : 1% 중요하죠.

▶ 권순정 :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500표 미만으로도 많이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접점지역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2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궁금한 게 18세 학생들, 그러니까 18세 청소년... 청년들이라고 하죠. 청년들의 성향은 혹시 조사된 게 있었어요?

▶ 권순정 :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에 리얼미터에 이번에 선거권을 얻는 사람들만 1천 명 뽑아 조사를 해보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18세가 20대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18세도 성별로 나눠서 18세 남성 같은 경우는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만 18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20대의 정당 지지도로 보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20대 남성하고 여성을 나눠보면 20대 여성은 민주당 쪽으로 가고 20대 남성은 상당히 자유한국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최근 정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북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 60대 이상과 20대 남성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18세도 비슷하게 가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단순히 민주당이 만 18세가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 김경래 : 어떤 언론사가 조사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지는 않으셨군요?

▶ 권순정 : 아직은 안 했는데,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 결과 재미있겠네요. 그거 나오면 한번 모셔야겠다.

▶ 권순정 : 이것 말고도 비례정당 출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 김경래 : 비례자유한국당.

▶ 권순정 : 또 보수 통합의 여부,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선언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구도 문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보죠. 정당 지지율은 최근에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 권순정 : 지금 정당 지지율은...

▷ 김경래 :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게 있죠, 가장 최근 것?

▶ 권순정 : 예,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조사했는데 이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1월 3일 금요일까지 1월 1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조사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응답률은 4.8%였고요. 조사 방법은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이고 신뢰수준은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조사에서 민주당이 41.8%가 나왔고 한국당이 32.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한 몇 주간 보면 민주당이 2주 연속 상승했고 한국당은 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 김경래 : 둘 다 상승했네요?

▶ 권순정 : 예, 그러니까 보시면 선거제라든지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이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극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진행별로 각각의 제 집을 찾아가는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빠진 데가 어디예요, 둘 다 올라갔으면?

▶ 권순정 : 빠진 데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무당층이 감소하고 나머지 정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군소정당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그게 2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새로운보수당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는 안 들어갔죠?

▶ 권순정 : 이거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이번 주 8일에 제가 알아보니까 등록을 한다고 그러고 공식적인 집계는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다음 주에 되는데 그런데 이미 새로운보수당을 집어넣어서 정당 또는 정치집단으로 집어넣어서 약간 틀을 가지고 조사한 것들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조사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어떤 조사는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1~2% 나오고 자동응답으로 조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 5% 전후까지 나오는데 사회현상을 전화 면접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한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5% 내외로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대략 한 5% 나온다고 치면 어디서 빠져서 오는 거예요?

▶ 권순정 : 아무래도 기존에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쪽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일부 나갈 수 있고.

▷ 김경래 : 보수 표가 분산되는 거군요.

▶ 권순정 : 그리고 또 우리는 흔히 민주당은 하나의 블루, 자유한국당은 레드로 한 색깔로 보는데 민주당 일부에서도 그쪽으로 결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국정수행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한 2주 연속 상승세죠?

▶ 권순정 : 2주 연속 상승세는 아니고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8월 2주차 이후 약 5개월 만에 2주 연속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 김경래 : 아, 그런 뜻이군요.

▶ 권순정 : 직전에 조사한 지난주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49.0%가 나왔고 부정 평가는 46.2%인데, 최근 신년에 접어들면서 여러 언론에서 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여론조사기관에서도 발표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넘어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좀 요인들로 보면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뿐만 아니라 12월 말까지는 넓혀서 본다고 하면 기억하시다시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정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고 일 안 하는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 대통령이 민생이나 경제에 집중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반사이익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것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법에 대해서 검찰이 공개 반발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 부분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 조국 전 장관 기소가 있었습니까. 이 3개가 뭉쳐지면서 집중되면서 검찰과 정부여당 간의 대립 국면, 유권자들이 느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한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재미있는 조사가 있는데 이건 리얼미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붙었을 경우 누구한테 투표하겠느냐?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 권순정 : 이것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매일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월 2일과 3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은 전화 면접 방식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3.2%포인트, 응답률은 8.1%인데요.

▷ 김경래 :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2020. 1. 7.

[김경래의 최강시사] 새롭게 유권자 된 18세들..여당에 유리하다고? 글썄 | Daum 뉴스

▶ 권순정 : 이 결과는 사실상에 지역구 투표 어디 하느냐는 조사인데, 사실상 여야 차기에서 가상 양자 대결하고 비슷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51.2%, 황교안 후보가 27.2%, 이낙연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앞서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재미있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겠다.

▶ 권순정 : 상당히 양이 많은데.

▷ 김경래 :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고맙습니다.

▶ 권순정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권순정 본부장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